



눈도 안 오는 미지근한 겨울의 한 모퉁이에서 하릴없이 이유 없는 분노나 쏟아 내고 있던 나는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『희망세상』을 읽어 보게 되었다. 그리 두껍지 않은 두

께와 밝은 색으로 인해 약간의 선입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접하고 나니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

미처 알지 못한 지위저 간 아니 볼록렌즈로 가려진 현대사의 한 부분을 자세한 설명과 충실한 내용으로 독자인 나의 심안을 즐겁게 해주었다. 덩그러진 렌즈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렌즈 자체를 평면으로 만드는 누군가의 노력에 원초적인 고마움마저 느껴졌다.

물론 기사 및 잡지의 내용에서 좀 더 추가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. 예를 들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기사가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웹사이트 주소나 기타 사료들을 볼 수 있는 장소의 주소 정도를 적어줬으면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요, 둘째는 한국 민주화 과정의 역사를 만화나 접근하기 쉬운 극화 정도로 연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.

오늘도 『희망세상』을 만들기 위해 가슴에 희망을 품고 자갈길을 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.

- 박현민(회사원)



대학교에서 노래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.

『희망세상』을 받아보면 맨 뒤에 있는 이영미 선생님의 글 ‘못다부른 노래’를 제일 먼저 펼쳐보곤 했습니다. 노

래패 활동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 제각각 모두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

음을 또 그 노래들이 그 시대의 희망을 담고 있었음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, 후배들이랑 함께 읽으며 우리가 부르는 노래, 또 우리가 불리아 할 노래들의 의미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지난 1월호에는 이영미 선생님의 글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대신에 ‘민중의 노래를 찾아서’라는 코너가 생겼더라고요. 민중가요, 그리고 민중 노래패의 소중한 역사를 배우게 되어서 좋았습니다.

또한 ‘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’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.

『희망세상』……, 아주 얇은 책자이지만 그것이 주는 무게감은 무척 큰 것 같아요.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소식을 줄 수 있는 대중적인 잡지가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, 그리고 외면해 왔던 세상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듯 싶습니다. - 양소형(학생)
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.

『희망세상』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, 제안,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의견은 엽서나 팩스,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.

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-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
홍보출판과 희망세상 담당자 앞
팩 스 : 02-3709-7530
이 메 일 : hope@kdemo.or.kr